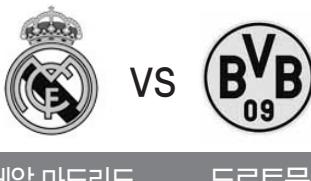




바르셀로나

뮌헨

# 내일부터 4강 축구전쟁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티키타카' 대 선굵은 축구...부상 메시 출전 여부 관심

5년 넘게 세계 클럽축구를 흥행한 바르셀로나는 프리미어리가에서 32라운드까지 승점 84를 획득, 리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승점 71)를 크게 앞서며 우승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뮌헨은 분데스리가 30라운드에서 81점을 획득해 이미 우승을 확정한 상태. 역대 최강을 자랑하는 뮌헨은 포칼컵에서도 결승에 올라 트레블을 꿈꾸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티키타카'(Tiki-Taka)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빠르게 왔다 갔다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라는 정교한 패스 플레이를 앞세워 볼 점유율을 높여 상대를 압도한다. 골키퍼에서 시작해 최전방까지 끊임없이 패스를 활용해 상대 수비수를 무력화하는데, 어떤 팀을 만나도 볼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경기를 지배한다.

최대 관심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에이스 리오넬 메시의 출전 여부. PSG와의 8강전에서 '메시의 바르셀로나'와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의 차이를 실감했기에 그의 출전 여부는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됐다. 메시는 최근 프리미어리가 두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 집중했고, 다행히 정상적인 몸 상태를 되찾았다. 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도 '메시가 지난 18일부터 팀 훈련에 복귀했다. 24일 4강 1차전에 선발 출전 한다'며 반겼다.

메시의 복귀는 바르사 팬들에게도 안도감을 주고 있다. 현재 메시는 프리미어리가에서 29경기 43골로 엄청난 득점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8골을 터트렸다.

뮌헨은 펠러와 리베리(또는 로벤)을 활용한 측면 날개 공격이 날카롭다. 선굵은 축구를 구사하지만 정교한 패스까지 가미돼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 축구'에 버금간다는 평가다. 바르셀로나와의 상대전에서도 3승2무1패로

앞서있다.

뮌헨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0라운드까지 무려 89골을 터트려 경기당 평균 2.96골의 놀라운 화력을 과시한다. 30경기 동안 단 14골만 내쉬며 기당 평균 실점이 0.47골에 불과하다.

뮌헨의 주요 득점원은 토마스 웰러. 웰러는 측면 공격과 세도 스트라이커까지 모두 소화하는 다재다능함을 앞세워 이번 대회에서 5골을 뽑아냈다. 메시의 발과 웰러의 머리 중 어디에서 득점포가 터질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4강 1차전의 관전 포인트다.



자. 이제 4강이다. '별들의 전쟁'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뮌헨은 뮌헨(한국시간 24일 오전 3시45분·독일 시간 25일 오전 3시45분·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티디온)과 격돌한다. 스페인 프리미어리가와 독일 분데스리가 1.2위 팀이 유럽 패권을 놓고 맞붙는 자존심 전쟁이다. 세계의 많은 팬들이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 결승전 더비를 꿈꾸지만 분데스리기의 강호들이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양 팀 감독의 입에서 먼저 설전이 불을 냈었다. 4강 대진이 확정되자 '파자 감독' 도르트문트의 클롭은 '준결승 상대가 레알이어서 기쁘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레알 마드리드의 무리뉴 감독이 4강 상대팀의 경기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3일 열린 도르트문트와 그로이터 뤼르트의 경기를 관전 할 때도 '무리뉴는 전혀 슬모없는 보고서를 들고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궁금한 게 있었다면 내게 전화를 해야 했다'라고 비아냥댔다.

독설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무리뉴 감독이지만 "나는 지금껏 도르트문트에 대해 별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걸로도 충분하다"며 품격 낮은 비방전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클롭은 "무리뉴는 내가 말이 많다고 했다. 예전에 선생님이 나에게 자주 하던 말이다. 그럼 닉치고 있었지."라며 응수해 설전은 일단락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역대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9번이나 빅이어컵을 들어 올린 강팀이다. '스페셜 원'을 넘어 '운이 있'이 된 명장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와 베네시, 이과인 등이 실세가 됐다.

호날두는 조별리그부터 8강전까지 10경기를 모두 풀타임을 뛰면서 11골을 잡아내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흉명장'으로 손꼽히는 클롭 감독이 지휘하는 도르트문트는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한 차례밖에 없지만 레반도프스키(6골), 마르코 로이스(4골), 마리오 괴체(2골)가 앞장선 공격력은 위력적이다.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에서도 30라운드까지 74골(경기당 평균 2.47골)을 기록, 뮌헨(89골)에 이어 득점 2위다. 클롭 감독 전술의 핵심은 빠른 템포와 중원부터 시작되는 강력한 압박, 끊고 결합한 패스로 순식간에 공격을 펼친다. 특히 도르트문트는 32강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홈 2-1 승, 원정 2-2 무승부를 기록해 자신감에 넘쳐 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가 최상의 경기력과 드림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 승부는 예측불허다. 지난 시즌 텔시의 기적적인 우승에 이어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질지 내일 새벽부터 벌어질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 축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제관자 jkyou@kwangju.co.kr

## 파워풀 공격력 대 역습의 대결...사령탑 설전도 재미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양 팀 감독의 입에서 먼저 설전이 불을 냈었다. 4강 대진이 확정되자 '파자 감독' 도르트문트의 클롭은 '준결승 상대가 레알이어서 기쁘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레알 마드리드의 무리뉴 감독이 4강 상대팀의 경기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3일 열린 도르트문트와 그로이터 뤼르트의 경기를 관전 할 때도 '무리뉴는 전혀 슬모없는 보고서를 들고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궁금한 게 있었다면 내게 전화를 해야 했다'라고 비아냥댔다.

레알 마드리드는 역대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9번이나 빅이어컵을 들어 올린 강팀이다. '스페셜 원'을 넘어 '운이 있'이 된 명장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와 베네시, 이과인 등이 실세가 됐다.

호날두는 조별리그부터 8강전까지 10경기를 모두 풀타임을 뛰면서 11골을 잡아내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흉명장'으로 손꼽히는 클롭 감독이 지휘하는 도르트문트는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한 차례밖에 없지만 레반도프스키(6골), 마르코 로이스(4골), 마리오 괴체(2골)가 앞장선 공격력은 위력적이다.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에서도 30라운드까지 74골(경기당 평균 2.47골)을 기록, 뮌헨(89골)에 이어 득점 2위다. 클롭 감독 전술의 핵심은 빠른 템포와 중원부터 시작되는 강력한 압박, 끊고 결합한 패스로 순식간에 공격을 펼친다. 특히 도르트문트는 32강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홈 2-1 승, 원정 2-2 무승부를 기록해 자신감에 넘쳐 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가 최상의 경기력과 드림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 승부는 예측불허다. 지난 시즌 텔시의 기적적인 우승에 이어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질지 내일 새벽부터 벌어질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 축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제관자 jkyou@kwangju.co.kr

## F1대회 경기 진행요원 모집

조직위, 30일까지 접수

F1대회 조직위원회와 한국자동차 경주협회(KARA)가 2013 F1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의 경기 진행요원(오피셜)을 모집한다.

경기 진행요원은 경주장 안팎에서 깃발 등 각종 신호로 경주를 진행하고 사고발생시 현장 정리와 화재 진압, 긴급구조 등을 수행하는 정예요원이다. 보통 국내 경주에는 100명 내외의 진행요원이면 가능하지만 F1대회에는 국내외 인력으로 800명 이상이 필요하다.

F1대회 진행요원 홈페이지(www.koreangp-official.kr)에서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체 건강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등포, 한국 거주 외국인(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으로 5월부터 대회 전까지 진행 예정인 교육훈련 참가와 대회기간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자동차경주 진행요원 활동 경력에 따라 루키(Rookie), 어드밴스(Advance), 엑스퍼트(Expert) 단계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루키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자격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40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어드밴스는 F1 대회 2회 또는 2년 이상 경력자로 국내 자동차 대회에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다면 가능하다. 엑스퍼트는 F1 대회 3회 또는 5년 이상 경력자로는 국내 자동차 대회에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이다.

활동 경력과 교육실적 등을 고려해 최종 선발된다. 진행요원은 유니폼, 경기 진행용품, 대회 기간중 보험 가입, 숙식과 교통편, 소정의 근무수당과 대회 입장권이 지급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남해안컵 국제 크루저 요트대회

23~26일 30여팀 300명 참가

전남도는 부산시, 경남도와 공동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남해안컵 국제 크루저 요트대회'를 개최한다.

남해안컵 국제 크루저 요트대회는 남해안 관광활성화와 남해안권역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등을 위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23일 오전 11시 여수 세계박람회장 옥스포 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여수 신항에서 출발, 경남 거제항까지 1구간 경기로 진행된다. 또 지세포항에서 부산 수영만까지 2구간 경기로 진행된다. 24일 경기장을 바꾸어 경기력을 높여온 광주·전남권에서 출발하는 10경기로 확장된다. 특히 25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26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27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28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29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30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31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32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33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34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35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36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37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38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39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40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41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42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43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44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45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46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47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48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49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50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51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52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53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54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55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56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57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58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59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60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61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62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63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64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65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66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67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68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69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70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71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72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73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74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75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76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77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78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79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80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81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82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83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84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85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86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87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88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89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90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91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92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93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94일 경기는 100m 해상에서 카페와 함께 하는 여수 해상 카페 페스티벌로 열린다. 95